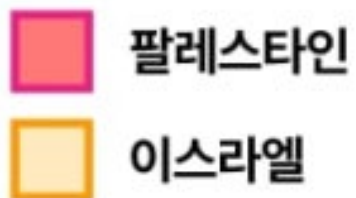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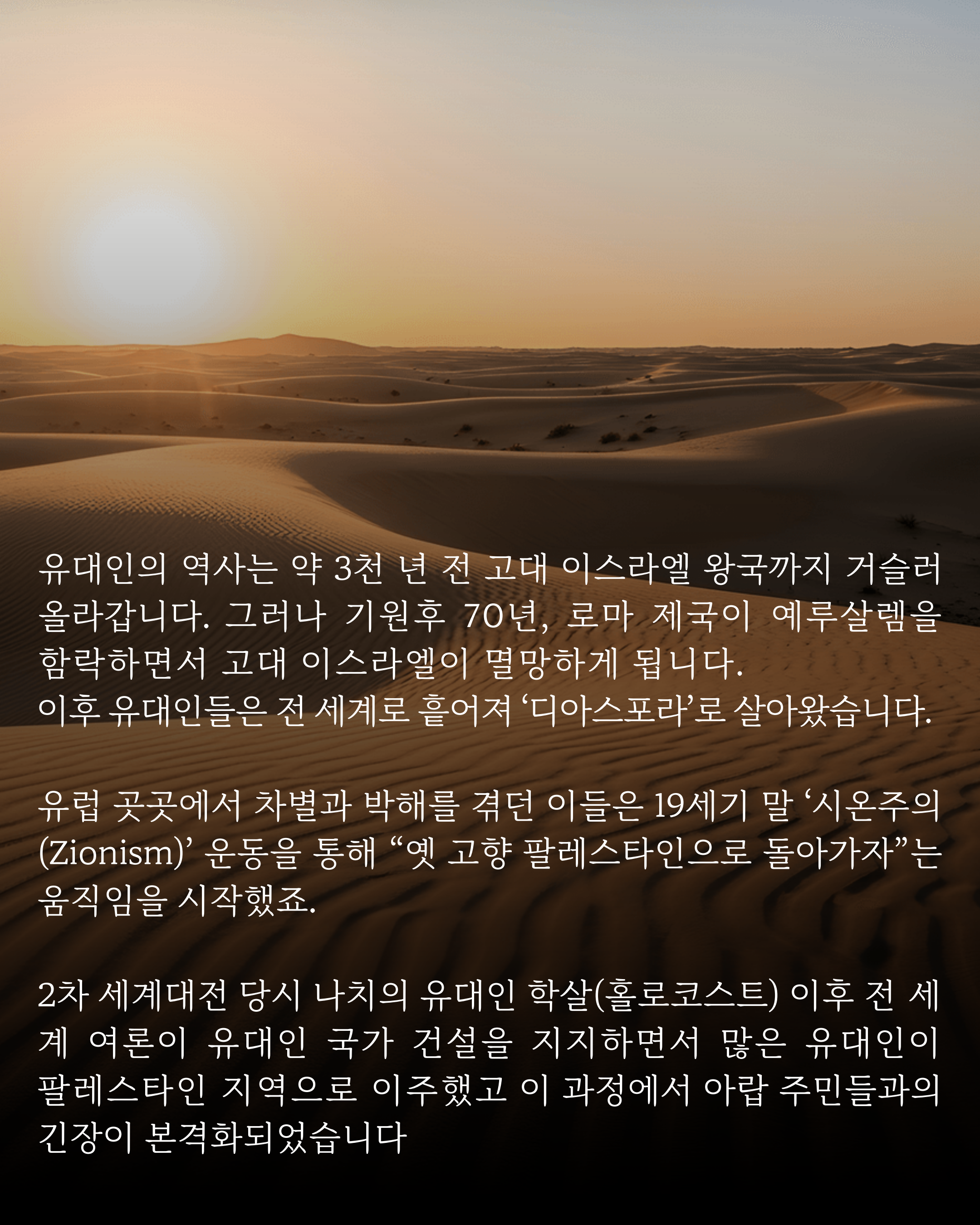
중동의 화약고

가시지구를 두고
대립하는 이유

이미지 출처 : 나라스페이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좁은 해안 지대로, 약 365 km² 면적에 (2025년 1월 기준) 약 2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약 3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왕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원후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차별과 박해를 겪던 이들은 19세기 말 ‘시온주의 (Zionism)’ 운동을 통해 “옛 고향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을 시작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 이후 전 세계 여론이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하면서 많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아랍 주민들과의 긴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47년, 유엔은 영국 위임통치령이던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는 분할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랍권은 이를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듬해인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곧바로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유엔이 제시한 영토보다 훨씬 넓은 지역 (56% -> 78%)을 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약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터전을 잃고 주변국으로 피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분쟁사



1947

유엔 개입



□ 유대인 국가
■ 아랍 국가
■ 유엔 관리
유엔, 팔레스타인 분할해 아랍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각각 세우는 결의안 채택. 아랍인들 거부

1949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 이후 휴전협정. 요르단,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통제. 이집트, 가자지구 통제

1967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 이스라엘 점령 지역

1985



■ 이스라엘 점령 지역
■ 1967년 이후
■ 1978년부터 레바논 남부지역 점령
이스라엘, 1982년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반환

2023



요르단, 1988년 서안지구 영유권 포기. 이스라엘, 2000년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점령에 대한 적법여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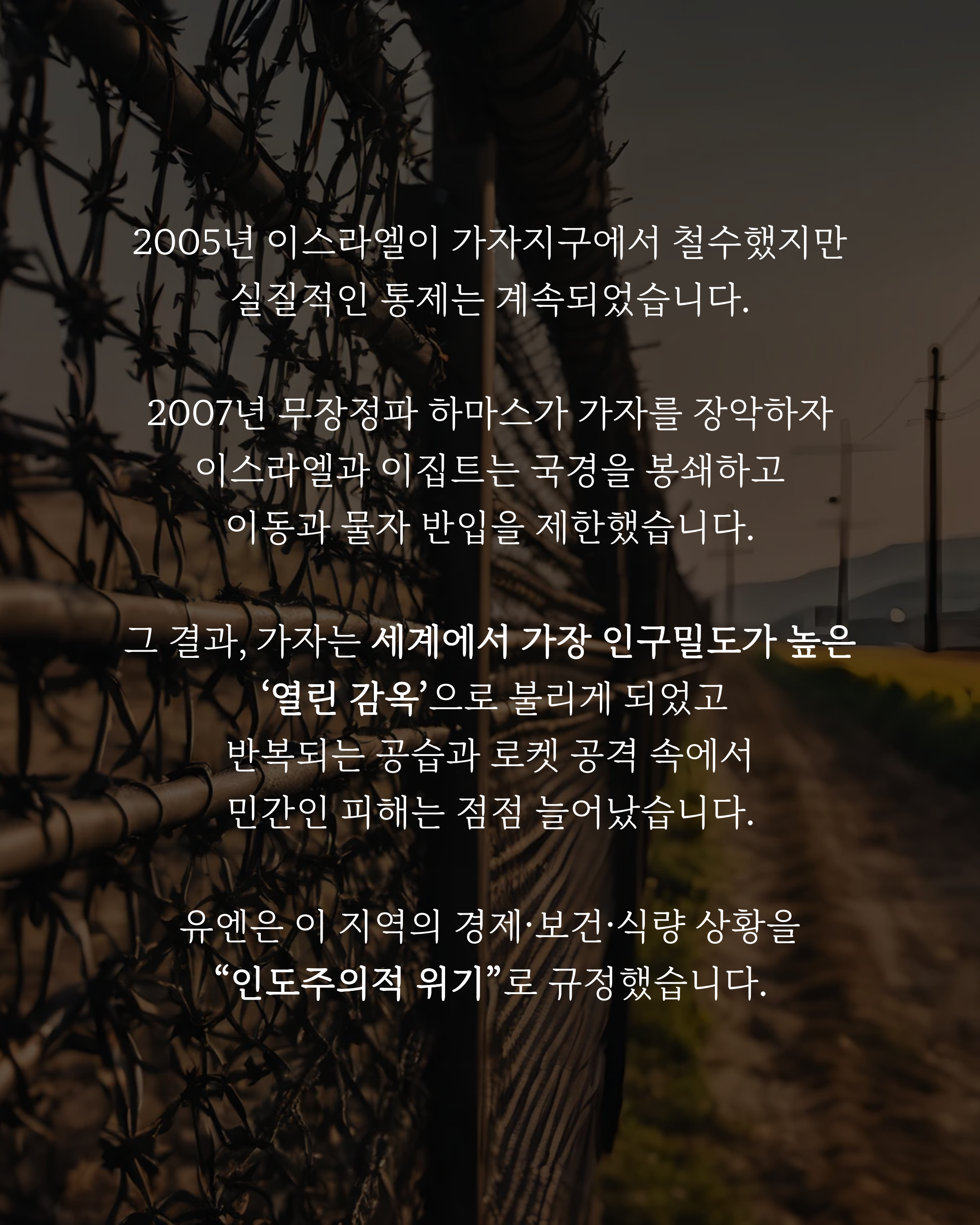
AFP 연합뉴스

자료: UN, 이스라엘 외무부, 더럼대학교

1967년, 이스라엘은 이집트·시리아·요르단과의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승리하며 가자지구·요르단강 서안·동예루살렘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갈랐지만 팔레스타인인의 삶은 점령과 통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후 정착촌 건설과 군사 충돌의 중심이 되었고 국제사회는 ‘점령지 철수’와 ‘팔레스타인 자치’ 요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지만
실질적인 통제는 계속되었습니다.

2007년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를 장악하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과 물자 반입을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열린 감옥’으로 불리게 되었고
반복되는 공습과 로켓 공격 속에서
민간인 피해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유엔은 이 지역의 경제·보건·식량 상황을
“인도주의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2023년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대규모 충돌이 이어지며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가자 내 인도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인질 일부 석방과 군사작전 중단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지만 가자지구의 실상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역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있고 공습과 무력 충돌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물자와 연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치안 붕괴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그 안의 일상은 여전히 전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격파인 하마스가 다스리고 있는 가자지구.
하마스의 가장 큰 지지층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불만을 품은 빈민층입니다.

이스라엘은 장벽과 검문소를 설치했고
이집트도 보안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한 상태라
가자지구는 말 그대로 거대한 감옥이 됐습니다.

빈민층의 불만이 극에 달할수록 하마스의 힘이 더욱 커지고
하마스의 테러행위가 늘어날수록 이스라엘의 강경대응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전쟁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은 언제나 가장 약한 이들의 삶을 먼저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인권과 언론의 역할, 국제 연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편견 없이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폭력과 배제 없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를 통해, 목소리를 통해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출처 및 참고자료

벌거벗은 세계사, <이스라엘 중동 분쟁의 역사적 배경>

뉴스앤조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

경향신문, <“이스라엘, 침략 멈춘 적 없어...우린 죽음 피해 이동할 뿐” 가자 청년들의 울분>

씨에이스쇼 sirace show, <이스라엘 중동 분쟁의 역사적 배경>

BBC Korea,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

한겨레, <가자지구 ‘기근’ 선포>

시사IN, <가뿔진 채 굶어 죽는 가자지구 주민들>

뉴시스, <하마스 “인질 시신 4구 추가 인도”... 휴전 합의 이행 차질>

연합뉴스, <유엔 “가자 기근 임박”... 국제사회 지원 호소>

참세상, <“위태로운 휴전 합의”... “가자의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이트, <하마스 인질 시신 찾으러 국제팀 가자지구 파견...“곧 수색 시작”>

오마이뉴스, <‘권력 공백’ 엿보는 갭단... 지금 가자지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